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무기고로 만든 장본인

- 남조선 언론인이 폭로 -

최근 백지시기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무기고로 만든 미국의 책동에 대해 남조선언론(CBS)가 폭로하였다.

미국정부기관과 연구기관들의 각종 자료들과 미군부대들의 견감, 전문가들의 증언 등을 종합분석한데 기초하여 언론은 미국이 조선전쟁직전부터 남조선에 핵무기배치를 검토하고 실제로 1000여기에 달하는 각종 핵무기를 남조선강점 미군기지에 배치한 사실들을 공개하였다.

대표적인것이 바로 동아시지역에서 핵무기보관 및 배치관리를 담담한 미국의 《국동군사령부 운용절차》

라는 비밀문서이다. 본문 6개 조항과 그 부속 문서들로 구성된 문건에는 당시 《핵무기 배치된 부대》로 국동군관할 6곳, 국동해군관할 6곳, 국동해군관할 2곳이 각각 명시되어 있으며 그중 국동군속속 제8명기과전대가 있는 경기도 의정부와 제24명기과전대가 있는 안양시에 《핵무기배치장소》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미국의 핵무기실태에 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종합분석한다는 미국과학자연구회 핵정보프로젝트 국장은 남조선언론 《CBS》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남조선은 마치 핵무기전시장과도 같았다. 가장 많았을 때는 8종의 핵무기가 배치됐다. 《어니스트 존》 지상대상핵미사일, 《마라도》 핵순항미사일, AMD핵지뢰, 280mm핵직사포, 203mm핵직사포, B61핵폭격기용핵폭탄, 《나이키 헤르클레스》 대공 및 지상대지상 핵미사일, 155mm핵폭사포가 차례로 배치됐다.》

이처럼 남조선을 최대의 핵전초기지, 핵약고로 전변시킨 미국은 침략적인 핵전쟁계획에 기초하여 공화국과 우리 민족에 대해 항시적으로 핵공격을 일삼았다. 일찌기 조선전쟁시기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원자폭탄을 사용할수 있다.》고 떠벌이었고 아이젠하워는 1953년 12월 5일 영국수상 처칠과의 회담에서 《조선전쟁이 재발될 경우 미국은 원자폭탄을 사용》할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전후에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핵무기를 사용하여 적의 심장부를 치겠다》고 폭언한 슬레장거 전 미국방장관에 이어 1983년 《유사시 핵무기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던 버든 레간, 21세기에 들어서서 공화국을 《악의 축》, 《핵시설공격대상》으로 낙인찍은 부쉬 등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위협은 연대와 세기를 넘어 끊임없이 이어졌다.

《타임 스페리트》, 《독수리》, 《키 리졸브》, 《올지 프리덤 가디언》 등 공화국을 겨냥한 각이한 명칭의 핵전쟁연습들이 해마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광란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이렇게 농고할 때 남조선언론이 폭로한 각이한 핵기지의 화책동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들은 남조선을 저들의 핵전쟁화약고로 전변시키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고조시킨 핵법으로서의 미국의 정체를 또다시 보여주고있다.

본시기자 주광일

협은 년대와 세기를 넘어 끊임없이 이어졌다.

《타임 스페리트》, 《독수리》, 《키 리졸브》, 《올지 프리덤 가디언》 등 공화국을 겨냥한 각이한 명칭의 핵전쟁연습들이 해마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광란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이렇게 농고할 때 남조선언론이 폭로한 각이한 핵기지의 화책동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들은 남조선을 저들의 핵전쟁화약고로 전변시키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고조시킨 핵법으로서의 미국의 정체를 또다시 보여주고있다.

본시기자 주광일

남조선에서 대장동계발목의혹을 둘러싼 여야당 사이의 공방이 날로 치열해지고있다

〈대통령이 망언인가〉

남조선에서 대장동계발목의혹을 둘러싼 여야당 사이의 공방이 날로 치열해지고있다

남조선에서 대장동계발목의혹을 둘러싼 여야당 사이의 공방이 날로 치열해지고있다

남조선에서 대장동계발목의혹을 둘러싼 여야당 사이의 공방이 날로 치열해지고있다

남조선에서 대장동계발목의혹을 둘러싼 여야당 사이의 공방이 날로 치열해지고있다

남조선에서 대장동계발목의혹을 둘러싼 여야당 사이의 공방이 날로 치열해지고있다

남조선에서 대장동계발목의혹을 둘러싼 여야당 사이의 공방이 날로 치열해지고있다

남조선에서 대장동계발목의혹을 둘러싼 여야당 사이의 공방이 날로 치열해지고있다

남 민심의 눈초리는 《국민의힘》으로 쏠리게 되었다. 아니면 굴욕에 연기날리 없었고 《국민의힘》의 후보인 윤석열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와 《형, 동생》 하는 사이라는 설이 나돌고 그의 예비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의 누이에게 혈값으로 주대를 팔아먹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박상도는 문제의 회사관계자들로부터 최근 5년동안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으며 그의 아들 역시 불과 6년간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반종업원으로 일하다가 그곳에서 나올 때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것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이 사건에는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을 담당했던 특별검사, 전직대법관까지 연계된것으로 하여 정치권이 대혼란에 빠져들었다고 하는 것이다.

사건이 이렇게 번져자 바빠진것은 《국민의힘》이다. 내부에서는 《대선》예비후보들이 윤석열을 대장동계발목의혹의 공방자, 동조자로 몰아가고 당지도부는 사건과 연루된 박상도를 당에서 내쫓고 《국회》의원직에서도 제명되도록 압박하였다. 한편으로는 박상도의 제명

과 의원직사퇴를 압박했다고 하여 당대표와 최고의원사이며 말다툼, 신경전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외적으로는 리재명에 대한 《특별검사제》도입을 《국회》에 요구해나서면서 《국회》에서 구조를 웨치고 통성을 벌리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의 이러한 망동에 대해 이미전에 타진 윤석열의 선거의혹을 덮어 버리기 위한 꼼수로 분석하면서 《남침이 제정미》, 《제순으로 제 논 저르기》라고 평하고있다.

《부패백화점》, 《도적당》, 《차별기당》이라는 온갖 부패오명을 달고다니는 《국민의힘》이 그 누이의 《부정부패》에 대해 운운하는것이아말로 도적이 먼저 큰소리치는 격이라고 할수 있다.

남조선언론들이 평했듯이 《국민의힘》에게는 대장동계발목의혹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정치적적속을 겨우려치려는데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이다. 대장동계발목의혹의 주범은 누구인가?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의 평을 들어보아도 구린내의 진원지가 어디인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다. 본시기자 한일혁

남조선언론들이 평했듯이 《국민의힘》에게는 대장동계발목의혹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정치적적속을 겨우려치려는데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이다. 대장동계발목의혹의 주범은 누구인가?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의 평을 들어보아도 구린내의 진원지가 어디인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다. 본시기자 한일혁

남조선언론들이 평했듯이 《국민의힘》에게는 대장동계발목의혹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정치적적속을 겨우려치려는데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이다. 대장동계발목의혹의 주범은 누구인가?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의 평을 들어보아도 구린내의 진원지가 어디인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다. 본시기자 한일혁

남조선언론들이 평했듯이 《국민의힘》에게는 대장동계발목의혹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정치적적속을 겨우려치려는데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이다. 대장동계발목의혹의 주범은 누구인가?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의 평을 들어보아도 구린내의 진원지가 어디인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다. 본시기자 한일혁

남조선언론들이 평했듯이 《국민의힘》에게는 대장동계발목의혹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정치적적속을 겨우려치려는데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이다. 대장동계발목의혹의 주범은 누구인가?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의 평을 들어보아도 구린내의 진원지가 어디인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다. 본시기자 한일혁

남조선언론들이 평했듯이 《국민의힘》에게는 대장동계발목의혹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정치적적속을 겨우려치려는데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이다. 대장동계발목의혹의 주범은 누구인가?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의 평을 들어보아도 구린내의 진원지가 어디인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다. 본시기자 한일혁

남조선언론들이 평했듯이 《국민의힘》에게는 대장동계발목의혹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정치적적속을 겨우려치려는데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이다. 대장동계발목의혹의 주범은 누구인가?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의 평을 들어보아도 구린내의 진원지가 어디인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다. 본시기자 한일혁

남조선언론들이 평했듯이 《국민의힘》에게는 대장동계발목의혹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정치적적속을 겨우려치려는데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이다. 대장동계발목의혹의 주범은 누구인가?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의 평을 들어보아도 구린내의 진원지가 어디인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다. 본시기자 한일혁

남조선언론들이 평했듯이 《국민의힘》에게는 대장동계발목의혹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정치적적속을 겨우려치려는데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이다. 대장동계발목의혹의 주범은 누구인가?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의 평을 들어보아도 구린내의 진원지가 어디인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다. 본시기자 한일혁

남조선언론들이 평했듯이 《국민의힘》에게는 대장동계발목의혹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정치적적속을 겨우려치려는데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이다. 대장동계발목의혹의 주범은 누구인가?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의 평을 들어보아도 구린내의 진원지가 어디인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다. 본시기자 한일혁

남조선언론들이 평했듯이 《국민의힘》에게는 대장동계발목의혹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정치적적속을 겨우려치려는데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이다. 대장동계발목의혹의 주범은 누구인가?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의 평을 들어보아도 구린내의 진원지가 어디인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다. 본시기자 한일혁

《4차산업혁명시대에 봉건적인 미신일...》, 《정치인이 풍수나 점에 의존하는것은 크게 조소받을 일》.

이것은 어느 한 외신의 보도입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아닌 남조선의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라는 윤석열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얼마전 《국민의힘》 후보들의 5차 TV토론회에 참가한 윤석열이 열성적 토론하며 운성을 하는데 글썽 손바닥에 《王(임금 왕)》자가 새겨져 있었다는것이 아닙니다.

《왕》자는 윤석열이 스스로 새놓은, 아니면 진짜 미신쟁이가 새주었을수 있다는 설이 파다했습니다.

미신을 쫓는 《허황한 후

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것은 물론이구요. 남조선언론도 윤석열의 《王》자를 보고 《이러다 최순실시대로 다시 돌아가는것 아니냐》, 《대선이 주술대선으로 변하였냐》, 《얼마나 준비가 안되었으면 무속신앙에 의존할가》 하고 공격, 비난, 조소, 조롱 등 여러가지입니다.

설마하니 남조선에서 《대

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것은 물론이구요. 남조선언론도 윤석열의 《王》자를 보고 《이러다 최순실시대로 다시 돌아가는것 아니냐》, 《대선이 주술대선으로 변하였냐》, 《얼마나 준비가 안되었으면 무속신앙에 의존할가》 하고 공격, 비난, 조소, 조롱 등 여러가지입니다.

설마하니 남조선에서 《대

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것은 물론이구요. 남조선언론도 윤석열의 《王》자를 보고 《이러다 최순실시대로 다시 돌아가는것 아니냐》, 《대선이 주술대선으로 변하였냐》, 《얼마나 준비가 안되었으면 무속신앙에 의존할가》 하고 공격, 비난, 조소, 조롱 등 여러가지입니다.

설마하니 남조선에서 《대

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것은 물론이구요. 남조선언론도 윤석열의 《王》자를 보고 《이러다 최순실시대로 다시 돌아가는것 아니냐》, 《대선이 주술대선으로 변하였냐》, 《얼마나 준비가 안되었으면 무속신앙에 의존할가》 하고 공격, 비난, 조소, 조롱 등 여러가지입니다.

설마하니 남조선에서 《대

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것은 물론이구요. 남조선언론도 윤석열의 《王》자를 보고 《이러다 최순실시대로 다시 돌아가는것 아니냐》, 《대선이 주술대선으로 변하였냐》, 《얼마나 준비가 안되었으면 무속신앙에 의존할가》 하고 공격, 비난, 조소, 조롱 등 여러가지입니다.

설마하니 남조선에서 《대

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것은 물론이구요. 남조선언론도 윤석열의 《王》자를 보고 《이러다 최순실시대로 다시 돌아가는것 아니냐》, 《대선이 주술대선으로 변하였냐》, 《얼마나 준비가 안되었으면 무속신앙에 의존할가》 하고 공격, 비난, 조소, 조롱 등 여러가지입니다.

설마하니 남조선에서 《대

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것은 물론이구요. 남조선언론도 윤석열의 《王》자를 보고 《이러다 최순실시대로 다시 돌아가는것 아니냐》, 《대선이 주술대선으로 변하였냐》, 《얼마나 준비가 안되었으면 무속신앙에 의존할가》 하고 공격, 비난, 조소, 조롱 등 여러가지입니다.

설마하니 남조선에서 《대

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것은 물론이구요. 남조선언론도 윤석열의 《王》자를 보고 《이러다 최순실시대로 다시 돌아가는것 아니냐》, 《대선이 주술대선으로 변하였냐》, 《얼마나 준비가 안되었으면 무속신앙에 의존할가》 하고 공격, 비난, 조소, 조롱 등 여러가지입니다.

설마하니 남조선에서 《대

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것은 물론이구요. 남조선언론도 윤석열의 《王》자를 보고 《이러다 최순실시대로 다시 돌아가는것 아니냐》, 《대선이 주술대선으로 변하였냐》, 《얼마나 준비가 안되었으면 무속신앙에 의존할가》 하고 공격, 비난, 조소, 조롱 등 여러가지입니다.

설마하니 남조선에서 《대

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것은 물론이구요. 남조선언론도 윤석열의 《王》자를 보고 《이러다 최순실시대로 다시 돌아가는것 아니냐》, 《대선이 주술대선으로 변하였냐》, 《얼마나 준비가 안되었으면 무속신앙에 의존할가》 하고 공격, 비난, 조소, 조롱 등 여러가지입니다.

설마하니 남조선에서 《대

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것은 물론이구요. 남조선언론도 윤석열의 《王》자를 보고 《이러다 최순실시대로 다시 돌아가는것 아니냐》, 《대선이 주술대선으로 변하였냐》, 《얼마나 준비가 안되었으면 무속신앙에 의존할가》 하고 공격, 비난, 조소, 조롱 등 여러가지입니다.

설마하니 남조선에서 《대

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것은 물론이구요. 남조선언론도 윤석열의 《王》자를 보고 《이러다 최순실시대로 다시 돌아가는것 아니냐》, 《대선이 주술대선으로 변하였냐》, 《얼마나 준비가 안되었으면 무속신앙에 의존할가》 하고 공격, 비난, 조소, 조롱 등 여러가지입니다.

설마하니 남조선에서 《대

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것은 물론이구요. 남조선언론도 윤석열의 《王》자를 보고 《이러다 최순실시대로 다시 돌아가는것 아니냐》, 《대선이 주술대선으로 변하였냐》, 《얼마나 준비가 안되었으면 무속신앙에 의존할가》 하고 공격, 비난, 조소, 조롱 등 여러가지입니다.

설마하니 남조선에서 《대

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것은 물론이구요. 남조선언론도 윤석열의 《王》자를 보고 《이러다 최순실시대로 다시 돌아가는것 아니냐》, 《대선이 주술대선으로 변하였냐》, 《얼마나 준비가 안되었으면 무속신앙에 의존할가》 하고 공격, 비난, 조소, 조롱 등 여러가지입니다.

설마하니 남조선에서 《대

만필 초록은 동색

《우리 말과 글이 이렇게 수난을 겪은적은 없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우수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말과 글이 심히 훼손되고있다.

말과 글의 수난

남조선잡지 《주간경향》은 《말과 글의 수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해마다 《한글날》을 전후해서는 거의 모든 매체가 우리 말과 글과 관련된 기사를 다룬다. 한글의 우수성을 되새기거나 아름다운 우리 말을 알리기 위해 애쓴이들의 이자기를 전한다. 하지만 이런 미담보다는 우리 말에 섞여있는 일본어의 잔재를 지적하고 파다한 외래사용을 자제하자는 기사가 더 눈에 띈다. 올해도 례외가 아니었다.

우리 말과 글이 훼손되고 왜곡되거나 일본어찌꺼기가 일상속에서 범람한다는 지적은 수없이 제기되어왔다. 인터넷, 소셜미디어의 급격한 발달과 확산에 따라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온라인상에

는 온갖 혐오와 비하의 언어, 육설이 판부하다. 이른바 《금식체》로 통칭되는 청소년들의 비속어는 우리말 파괴뿐 아니라 세대간 소통마저 단절시키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을 배척하고 일본상품을 불매하는 운동을 펼치면서도 우리 말속에 파고든 일본어를 아무런 의식없이 마구 쓴다.

글만 그런게 아니다. 말도 그렇다. 이제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막말의 수준은 거의 뒷잡이에 달했다. 반말은 민의의 장에서 이제 일상화된지 오래다.

말과 글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담고있다. 그런데 요즘처럼 아름다운 우리 말과 글이 이렇게 수난을 겪은적도 없는 것 같다. 우리 말과 글의 소중함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한글날》의 취지를 무시해 왔다. 정말 부끄럽다.

전화인과 파괴인가

남조선잡지 《주간조선》은 《그들만의 한글, 전화

인파 파괴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술까말 3~5년이상씩 전하는 사람을 단지 헤여지기 두려운 접경이 아닐까?》

《법신들이 자제질하니까 좋아죽겠지?》

《미국 일본 양쪽 찍는 예들이 우리 나라 고소 크리커?》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리용한다는 인터넷게시판을 들어가보면 흔히 접할수 있는 표현들이다. 《술까말》, 《자제질》, 《법신》, 《자제질》은 《미고당기》, 《법신》은 《법신》, 《자제질》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행위》, 《양옹》은 《야옹》, 《크리》는 영어 《크리컬》을

줄여쓴것이다.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세대가 구분되는 현상이 예제없이 있었던지 아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젊은 층과 그렇지 않은 기성세대간의 언어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있다. 망측이 《서로의 언어》를 리해하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원활한 의사소통마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일부에선 《이래서야 제대로 된 한글교육이 되겠느냐》며 개탄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고 썼다.

본시기자

빛더미에 깔려 신음하는 청년들

최근년간 남조선에서 청년들이 빛으로 사는 세대, 《빛세대》로 전락되어 사회적거리로 되었다고 한다.

현재 남조선청년들이 진 빛은 공식적인 통계로 발표된것만도 4300억US\$이상이고 청년세대의 빚증가속도는 다른 세대의 2배에 이르렀고있다. 2021년 7월 현재 공식적인 청년실업률은 9%로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있고 결국 수입이 없는 청년들이 빛을 내어 살아갈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남조선사회를 흔들고있는 부동산문제와 끊임없이 오르는 물가도 청년들을 《빛세대》로 만든 요인이라고 한다. 올해에 들어서서만도 청년들이 집을 못사기위해 빚짓돈이 60%나 증가하였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빛은 지난해에 비해 30%나 증가했다고 한다.

어 직업이 불안정한 청년들이 남먼저 해고되고 취업의 기회가 생기지 않아 수십만명이 실업자로 전락되었다고 한다.

2021년 7월 현재 공식적인 청년실업률은 9%로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있고 결국 수입이 없는 청년들이 빛을 내어 살아갈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남조선사회를 흔들고있는 부동산문제와 끊임없이 오르는 물가도 청년들을 《빛세대》로 만든 요인이라고 한다. 올해에 들어서서만도 청년들이 집을 못사기위해 빚짓돈이 60%나 증가하였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빛은 지난해에 비해 30%나 증가했다고 한다.

실업대란, 물가대란, 부동산대란으로 삶의 희망을 잃은 청년들이 《비박부자》가 되기 위해 또 빛을 내어 부동산과 주식투기에 빠져들면서 투기를 목적으로 청년세대가 진 빛은 수백억US\$에 달한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8700억US\$에 달하는 《국가》채무도 청년세대가 갚아야 할 미래의 빛으로 되면서 이들의 처지는 갈수록 어려워지고있다.

하여 《청년들이 력대급의 빛더미에 올라갔고 신용불량자로 굴러떨어지고있다.》, 《청년들이 빛더미에 놓리워 질식되고있다.》는 사회적비난이 날로 높아지고있다고

한다.

앞날에 대한 희망보다 절망에 빠진 청년들이 종당에는 극단한 선택을 하게 된다 고한다.

지난해 직업을 잃고 예인파도 갈라진 30대내성은 한달 가까이 식음을 전폐하고 목욕을 못한다며 울었다고 한다.

《올머름부터치던 그 순간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면...》

그 사실을 전하며 언론은 이렇게 절규했지만 빛더미에 깔린채 절망의 나락에서 신음하는 청년들에게 과연 어느 누가 구원의 손을 내밀어 줄수 있겠는가.

본시기자 안권일

본시기자

본시기자

본시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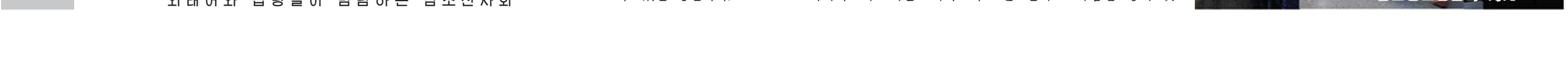
본시기자

본시기자

본시기자

본시기자

본시기자



어떻게 버린 것, 죽어가게

